+

시

론



김 영 식 GITC국제대학교 부총장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는 7조4천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 무리됐다. 이 성공은 단지 뛰어난 인프라와 행정 능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한 국인이 수천 년간 간직해 온 '웃음과 미소'의 다. 문화적 힘이 있었다. 경주의 숭고한 미소와 남도 문화 속에 스며있는 해원(解怨)적 웃음 이 결합한다면 앞으로 많은 국제적 행사에 더욱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경주의 얼굴무늬 수막새, 일명 '신라의 미 소'는 이번 APEC의 정신적 기둥이었다. 이 미소는 온화하고 흔들림이 없는 초월적인 평 안함을 상징한다. 신라의 미소가 걸린 천년 미소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단순한 우 연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각고의 노력의 산 물이기도 하다.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APEC이 '경주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외교적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침묵하는 숭고한 미소가 발산하는 포용력과 신뢰에서 비롯되 지 않았을까?

2025경주 APEC 성공과 미소문화

라와 안보 관리 능력이라는 하드웨어에 한국 의 품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더했다. 한국인 은 미소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누그러뜨리 고 상대방에게 신뢰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 하는 고유의 외교적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머와 위트는 여러 나라 정상들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도 대통 령의 유머와 위트는 어려운 외교 상황을 극 복하는데 큰 힘이 됐고, 성공적인 외교 관계 를 만들었다. 유머나 위트는 자신감과 마음

경주의 미소가 내면의 평화를 상징한다 면, 우리 광주·전남 지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남도 문화와 예술은 고통과 한을 폭발 적인 흥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해원(解怨) 의 웃음을 상징한다. 진도아리랑이나 흥타 령 등 슬픈 가락 위에서도 결국 신나는 장단 으로 흐르듯, 한국은 APEC을 준비하며 겪 었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유연하고 능동 적으로 극복해냈다. 이는 하회탈의 풍자적 인 해학과도 맥이 닿으며,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이 상징하는 호남의 대동정 신과 결합해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승화시 켜야 한다. 4천명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양반 문화의 손님 접대 문화에서 나온 넉넉한 인 심은 인간적인 환대를 통해 정상들의 마음 을 열었다. 이 따뜻한 웃음과 넉넉함이 APE 수막새의 미소는 경주가 갖춘 완벽한 인프 C이 단순한 경제 회의를 넘어선, 가장 친밀

하고 인간적인 외교의 장이 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2025 경주 APEC의 성공 공식 은 명확했다.

경주의 굳건한 인프라와 신라의 미소가 외 교적 안정성과 품격을 구축했던 모델을 바탕 으로 해 광주·전남의 군 공항 이전 문제, AI 와 에너지 관련한 사업 등 국가적으로 추진 하는 많은 사업들에 좀 더 여유가 있고 능동 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리라 믿는다. 이제 한국의 'K-웃음문화'는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인정받 의 평안함에서 자연적으로 발산되는 표현이 이야 한다. 신라의 미소처럼 고요하게 포용 하고, 진도아리랑처럼 신명 나게 문제를 해 결하는 호남의 지혜는 포스트 APEC 시대에 우리에게 직면한 복잡한 도전들을 해결할 새 로운 해법이 될 것이다.

>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여유있는 미소 와 상대를 포용하는 넓은 아량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외국인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품격있는 모습이다. 수도권 의 관광산업은 발달 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관광산업은 지지부진한 현실이고, 대학의 관 련학과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품격있는 친절문화로 세계의 중 심이 돼야 할 것이다. 무엇이 어려운가? 꽹과 리 하나로 전 세계의 응원문화를 바꾼 우리 가 아닌가?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우리가 모두 웃으면, 우리 호남과 대한민국의 신명이 용 솟음칠 것이다.

社說-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 분담금 늘릴 필요성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논의가 극 적으로 물꼬를 튼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합의한 1조원 규모 지역개발 지원금 조달 방안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은 광주시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부를 국가 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이는 3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시가 기부대양여 방 식을 통해 종전 부지 개발 차익으로 5천500억원 을 확보하고, 1천500억원은 직접 떠안을 가능성 에 무게가 실렸다.

다음달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6 자 TF에서 금액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지만 한 계 상황에 놓인 광주시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현재의 기부대양여 로는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불확실하다며 중앙 정부의 직접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7천 억원을 전가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 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시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써야 할 곳은 늘고 있다. 지방채 규모만 2조700억원, 채무 비율은 23.1%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도 마 위에 올랐었다. 재정 자립도 역시 37.4%로 맨 꼴찌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경험으로 광주시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선으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 군수 가 한자리에 모여 분명한 이행 의사를 확인, 답 보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 는 현실이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 계 완공 시점에 맞춰 민간공항을 옮기기로 선뜻 양보하면서 무안에 대한 1조원 지원이 가장 핵 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해서 광주시가 대규 모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얼마나 덜어내느냐 가 성패를 가르게 됐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그치지 말고 국가 사업으로 인정해 통크게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왕이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 확대를 긍정 검토해주길 시·도민들은 바라고

경제 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건설 경기의 침체 가 깊어지고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을 앞당기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6자 T F에서 실효적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호남에 대한 보상 지방정부 재정강화법 제정 합당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보고서 를 통해 가칭 '지방정부 재정강화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 20년간 동결된 내국세의 19.24% 인 지방교부세율을 27%로 올리는 게 골자다. 국 세(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주는 지방소비 세 배분도 중앙 대 지방 7.5 대 2.5에서 5.5 대 4.5로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지극히 당연하다.

3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한 원동 력이 됐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적 책임 이 그것이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헌신에 도 지금껏 차별과 홀대의 대명사로 계속 낙후돼 왔다. 시대적 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단 초라는 의미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하고 위축된 비수도권의 활력을 도 모해야 한다는데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이다. 특히 소멸 위험이 두드러지는 호남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이야말로 충분히 공감 대가 형성돼 있다. 특위가 지역 현안에 대해 단 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예산과 정책, 법안 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요구한 배경으로 풀이되 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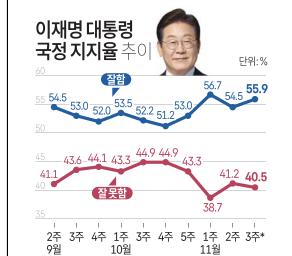
지방정부 재정강화법은 꼭 제정돼야 한다. 호 남을 '표나게' 챙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속했고,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집권여당이 고도의 정치력 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부 ·소비세율 인상, 예타 기준 금액 상향 등은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번엔 기필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조정해 달라고 했다.

경제성(B/C) 분석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 사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기준에서 1천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3배 상 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선 면 제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 다. 특위는 AI영재고 설립, 국립의대 신설, 광주 -나주 광역철도 등 광주 26개, 전남 35개를 포함 해 총 110개 과제를 제안하면서 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아울러 제시했 다. 물론 당론 채택을 요청한 사항이고 정청래 대표가 실행 의지를 보이며 화답했지만 포퓰리 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난관이 만만찮다.

5·18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으며, 12·

그래픽 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11월17~21일전국만18세이상 2,523명 대상 조사(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2.0%p) 무선 100% 자동 응답 전화 설문 방식, 응답률 4.8%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ଡ଼ପ 안 안 수 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p) 상승했다는 여론조 사 결과가 2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9%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5%로 전주 대비 0.7% 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 (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 에는 코스피 3천9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경 북(44.4%)이 일주일 새 7.5%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각 3.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49.9%에서 48.8%로 1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 응답률은 4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 리얼미터

깊어가는 가을에 선열을 기리며



🟏 기 고

송 형 택 언론인·수필가

나라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난국 을 헤쳐나갈 지도자를 기다린다. 과거 역사 가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국민은 풀처럼 바람 에 휩쓸리고 자칫 힘없이 뽑히기에 예부터 민초라했다.

하지만 민초는 세파에 휩쓸려도 다시 일어 서고 뽑힌 자리에 새 생명으로 되살아나곤 했다. 그것은 바로 민초와 함께하는 지도자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7년 왜란에 나 라와 백성을 구한 지도자로 우린 그를 불후 의 성웅으로 추앙한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 주쳐야 소리가 나고 새도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그 성웅은 이순신의 인품을 믿고 따른 숱한 민초와, 함께한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그렇게 이순신과 함께 왜란을 승리로 이끈 장수 고흥 사람인 송대립, 송희립, 송정립 일 문 삼 형제와 송대립의 아들 송심이 있다. 모 두 성웅 이순신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백 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영웅들 이다. 맏형인 송대립(1550-1597)의 본관은 여 산이며 형조 참판 송간의 6대손으로 아버지 는 현감 송관이다.

당시 흥양이던 고흥 동강면 마륜마을에서 태어나 선조 27년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상태

일 때인 1594년 무과에 급제, 지도 만호로 있 던 아우 송희립과 함께 통제사 이순신의 휘 하에서 싸웠다. 경사에 밝고 무예가 뛰어나 이순신의 천거로 도원수 권율의 창의별장이 의 도움을 받으며 왜적과 싸웠다. 1598년 왜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에 송대립은 흥양에 서 의병을 모아 적을 무찔렀다. 그러던 중 고 집중포화를 받는 명나라제독 진린을 구출하 니시 유키나가의 왜병이 급습 해왔다.

고흥반도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산 이 삼각뿔 모양의 뾰족한 첨산이다. 주민들 은 이웃 고을 순천 별량 동송리의 첨산을 암 첨산, 고흥 동강 마륜리의 첨산을 숫 첨산 이 라 일컫는다.

이 숫 첨산 전투에 앞장서 의병을 이끌던 송대립은 왜탄에 순국했다. 송심(1590-1637) 은 송대립의 아들이다. 아버지 송대립이 왜 군과 싸우다 전사하자 복수의 일념으로 어려 서부터 무예를 연마했다. 광해군 6년인 1614 년 무과에 급제, 함경도 북변의 수비에 종사 했다. 1623년 인조반정후 수군통제사 구굉의 막료인 선전관을 지내고 전라도 병마우후가 되었다.

1635년에는 홍원현감을 지내던 중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북병사 이항, 남병사 서우신 휘하의 척후장으로 남한산성 구원에 나섰다. 그러나 양근에 이르렀을 때 이미 강 화조약이 성립됐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철수하는 청군 소속의 몽골병을 추격하다가 함경도 안변 남산역 전투에서 순국했다.

송희립(1553-1623)은 1583년 별시 무과에 급제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녹도 만호 정운의군관으로 5월1일 거제에서 왜병 을 격파했다. 이어 남해 앞바다에 머물며, 영 남지역의 원병파견을 주장했다. 이순신이 원

균과 합동 작전에 나서자 옥포해전, 사천해 전, 한산대첩, 부산포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 다. 이어 1594년에 지도만호가 돼 형 송대립 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 적에게 포위돼 는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됐다. 이때 송희립 이 투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깜짝 놀란 이순신이 송희립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만 이순신도 총탄에 맞았다.

잠시 기절했던 송희립은 정신을 차리고 일 어나 이순신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기와 북채 를 들었다. 마치 호랑이가 울부짖듯 우렁차 게 함대를 이끌어 왜선 200여 척을 쳐부수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1601년 양산군 수, 8월에는 다대포 첨사가 됐고, 1611년 전라 좌도수군절도사로 수군을 이끌었다.

송정립은 1592 왜란에 형인 송대립, 송희립 이 전쟁터로 가자,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셨 다. 그러다 잠시 왜란 소강기에 모시던 어머 니를 같은 집안인 동복 현감 송두남에게 부 탁하고 1597년 5월6일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 을 찾았다. 군무를 정리하는 종사관이 돼 형 인 송희립과 함께 왜적과 싸웠다. 그러다 노 량해전에서 전사했으니, 일문 삼 형제가 모 두 성웅 이순신과 함께한 왜란 7년 전쟁의 영 웅이다.

이렇듯 오늘의 우리가 있음은 나라와 백성 을 위해 자신을 초개와 같이 바친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잠시 묵념으로 선열을 기리고, 하루빨리 난국을 극복해 민주주의의 초석 위에 천년만년 나라 가 번영하길 염원한다.

< 독자투고

11월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화재 위험 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 기이다. 난방 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소한 부주

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된다.

제78회를 맞이하는 올해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조 성'이다. 이 슬로건이 뜻하는 것처럼, 소방만 의 노력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 다. 지역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한 영암을 만들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조기에 감지, 대피 시 간을 확보해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 적이면서도 강력한 방패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 원칙을 기억해야 한 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화재 시 무조 건 대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계단실의 화염이나 연기를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면 오 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피난 전 반드시 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연기가 가득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상황을 '살펴서' 안전한 대피로 를 찾아야 한다. 이 원칙은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행동 요령이다.

나의 안전 습관이 이웃의 행복이다. 화재 예방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전 기장치의 플러그를 뽑고,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으며, 담배꽁초는 완전히 끈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영암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신재민·영암소방서 소방교〉

+

※ 독자투고를기다립니다.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 진 650-2080 집 경제부 650-2050 논 설 650-2006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 업 본 부 650-2007 축 650-2020 업 무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 (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